



수원특레시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시민건강 정책 토론회

일시

2022. 7. 6 (수) 15:00 ~ 17:00

장소

수원시홍재복지타운 4층 교육장

주관

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건강분과

건강도시

환경보건


먹거리보장

정신건강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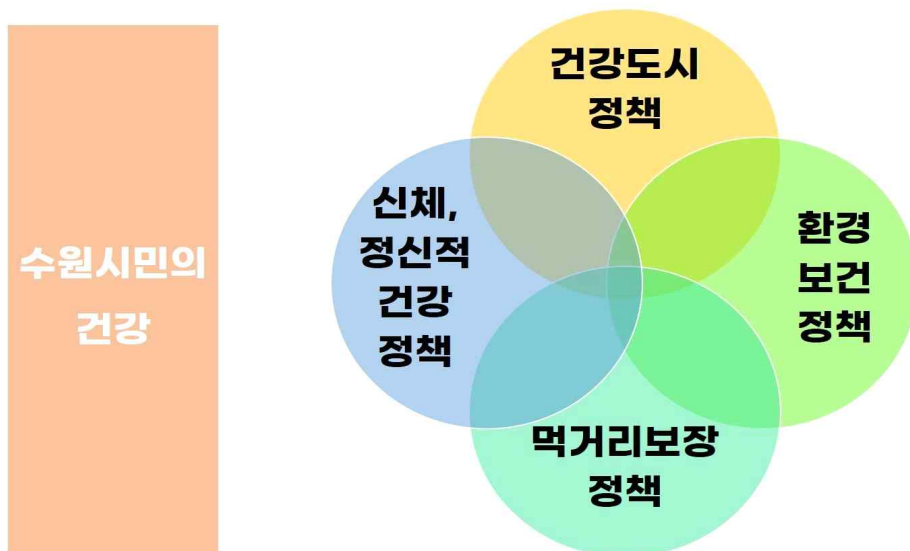
 시민건강정책 토론회 개요	1
[주제발표 1]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별첨자료)	5
강원지속가능도시환경연구소	
[주제발표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건강 정책 제안	9
시민건강분과 정책영역별 TF 위원	
[토론 1]	
[환경보건분야 토론]	29
이기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토론 2]	
[환경보건분야 토론]	31
박혜원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부센터장)	
[토론 3]	
[건강도시분야 토론]	33
김혜경 (전, 장안구보건소 소장)	
[토론 4]	
[정신건강분야 토론]	36
박미혜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토론 5]	
[먹거리보장분야 토론]	39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시민건강 정책** 토론회 개요

□ 추진배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 35조~ 36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사회 보장 욕구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하는 4년 단위 계획임. 수원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023년~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
- 또한, 수원시는 2020년 기초지자체 최초로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건강분과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건강에 밀접한 건강 도시 / 환경보건 / 먹거리보장 / 신체·정신적 건강 영역을 학습하고 정책을 고민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장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함.
- 건강은 인간 삶의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자 각자 가치있게 생각하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잠재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함.

※ 건강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됨.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함(WHO).



□ 토론회 개요

- 주 제 :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시민건강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22. 7. 6.(수) 15:00 ~ 17:00
- 장 소 :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교육장
- 참 여 : 건강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사회보장 단체·시설·기관 관계자 등
- 내 용 :
 - 주제발표 : 1)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내용
2) 시민건강 정책 제안
 - 지정토론 : 각 영역 전문가 토론
- 건강도시 / 정신건강 / 먹거리보장 / 환경보건
 - 자유토론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14:30~15:00	30	• 접수	- 다함께
15:00~15:05	05	• 개회 및 분과장 인사	- 사회자
15:05~15:25	20	•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발표	- 강원지속가능도시환경연구소
15:25~15:45	20	• 수원시 시민건강 정책 제안	- 각 영역별 발표(분과위원) 김혜란(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김유라(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변남순(수원YWCA) 이인신(수원환경운동연합)
15:45~15:50	05	• 좌장 인사, 토론자 소개 ※자리정돈	- 좌장: 최병준(수원시한의사회 회장)
15:50~16:40	50	• 지정토론 -이기철(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박혜원(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부센터장) -김혜경(전, 장안구보건소장) -박미혜(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종아(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좌장 진행, 토론자
16:40~17:00	20	• 현장 토론, 질의 응답 • 폐회 및 정리	- 좌장 진행

[주제발표 1]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강원지속가능도시환경연구원



 **[수원시환경보건종합계획 자료 별첨]**

 **[수원시환경보건종합계획 자료 별첨]**

[주제발표 2]

수원시 시민건강 정책 제안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건강분과
(건강도시 / 정신건강 / 먹거리보장 /환경보건)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건강 정책제안 내용(시민건강분과)

구분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영역
신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 건강도시 실행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 ○ 건강도시 전담부서 신설 ○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파일관리 	건강 도시
신규	퇴원환자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홈스테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스테이 개설을 위한 준비(추진단 구성) ○ 퇴원환자 홈스테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의뢰 접수 및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제공 → 종결 → 사례관리 	건강 도시 (연계)
지속 보완	동 건강복지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건강복지팀) 활성화 ○ 현장 자문단 운영 	건강 도시 (연계)
신규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스톱서비스 추진 (수원마음건강센터 건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마음건강센터 건립 사전 준비 ○ 수원마음건강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및 특수유형별 정신건강 사업 - 정신건강 원스톱 토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문화공간 제공, 정신건강 공동체 도모 사업 	정신 건강
신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먹거리보장 및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 ○ 먹거리보장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지원 기구 설치 ○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통한 주민 먹거리 공동체 형성 ○ 공유냉장고와 연계한 먹거리보장 프로그램 지원 	먹거리 보장
신규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먹거리보장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 먹거리 위원회 운영(거버넌스 운영체계 활성화) ○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민 식생활교육, 인식 교육 - 생애주기별 식생활 먹거리 교육 및 실천, 나눔 교육 	먹거리 보장
신규	폐의약품 배출체계 구축 및 배출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기획단 구성, 토론, 조례 제정 ○ 일원화된 폐의약품 관리체계 수립 및 모니터링 진행 	환경 보건
신규	우리동네 라돈지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라돈 측정을 통한 지도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돈 측정 시민참여단 모집 →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 측정 및 모니터링 → 저감방법 안내 	환경 보건

1 사업명 :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 문제,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거환경악화, 고용의 불안정 등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야기되었음. 이들 다중-원인적 문제들은 건강, 환경 그리고 인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부문들에 의해 다루어져야 함.
- 특히, 건강은 유전적 요인, 성, 연령 등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등 행태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요인 등 다수준의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 따라서,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 지향적 정책수립 및 지원적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부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부문 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2011.7.1. 보건정책담당관 건강도시팀이 신설되어 2011.11.10.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세부 규칙이 미비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움.
- 이후 2015년 보건소 보건정책팀·건강도시팀이 통합되어 보건기획팀으로 신설되면서 건강도시팀의 역할이 담당자 1명의 업무로 축소됨.
- 2011.9.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당시 건강도시 수원 프로파일이 작성되었으나, 지자체의 관심 부족 및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2011년 이후부터 자료 갱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건강도시 우수도시 사례: 조직도

 <p>건강도시과 사업과장 02-2148-3040</p> <p>건강도시팀 정책지원팀 생애계획팀 재직사업팀</p> <table border="1"> <thead> <tr> <th>이름</th> <th>직위</th> <th>담당업무</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김은영</td> <td>팀장</td> <td>건강도시팀 및 건강도시 T/E팀 운영, 분야별 업무협의, 국제 네트워크(WHO, WFPD, AFHC) 교류 및 활동 지원, 서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총괄</td> <td>02-2148-3041</td> </tr> <tr> <td>이지애</td> <td>주무관</td> <td>건강도시 연도별 계획 수립, 시행, 건강도시 홍보사업 발굴 추진 (신발 관리 평가 보고회), 문화건강포럼 운영 및 후원 관리, 건강도시 주민교육, 건강도시 직원 교육, 홍보구 건강도시 신규사업 발굴 운영</td> <td>02-2148-3042</td> </tr> <tr> <td>김보현</td> <td>주무관</td> <td>서유주입(예산 결산 감사) 활동 부서 재무 책임 관리 등</td> <td>02-2148-3043</td> </tr> <tr> <td>서현필</td> <td>주무관</td> <td>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총괄, 협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건강도시 정책 추진(공통)기밀 회의 등, 협회로 운영위원회 운영, 실무회의의 인사총회 개최, 협회회 정기총회 개최 지원</td> <td>02-2148-3045</td> </tr> <tr> <td>강신영</td> <td>주무관</td> <td>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운영(공모 및 심사 심사, 확충위원회 운영(확충 회의개최 연구 지원 등), AFHC 국제포럼 개최 및 지원, WHO 협력 개발도상국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WHO, WFPD, AFHC) 국제, 지역(연속 운영)연차 등), 화성도시 단계별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협회회 소식지 제작 및 발간</td> <td>02-2148-3046</td> </tr> <tr> <td>김보연</td> <td>주무관</td> <td>HHC 확충도시기안 관리, 협회회 총재이기 유지 및 자료 관리, 운영하는 총괄 발굴기 추진, 운영 지원 건강동아리 활성화, 건강도시 대회와 홍보, 홍보구 건강도시 신규사업 발굴 운영</td> <td>02-2148-3047</td> </tr> </tbody> </table>	이름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김은영	팀장	건강도시팀 및 건강도시 T/E팀 운영, 분야별 업무협의, 국제 네트워크(WHO, WFPD, AFHC) 교류 및 활동 지원, 서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총괄	02-2148-3041	이지애	주무관	건강도시 연도별 계획 수립, 시행, 건강도시 홍보사업 발굴 추진 (신발 관리 평가 보고회), 문화건강포럼 운영 및 후원 관리, 건강도시 주민교육, 건강도시 직원 교육, 홍보구 건강도시 신규사업 발굴 운영	02-2148-3042	김보현	주무관	서유주입(예산 결산 감사) 활동 부서 재무 책임 관리 등	02-2148-3043	서현필	주무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총괄, 협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건강도시 정책 추진(공통)기밀 회의 등, 협회로 운영위원회 운영, 실무회의의 인사총회 개최, 협회회 정기총회 개최 지원	02-2148-3045	강신영	주무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운영(공모 및 심사 심사, 확충위원회 운영(확충 회의개최 연구 지원 등), AFHC 국제포럼 개최 및 지원, WHO 협력 개발도상국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WHO, WFPD, AFHC) 국제, 지역(연속 운영)연차 등), 화성도시 단계별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협회회 소식지 제작 및 발간	02-2148-3046	김보연	주무관	HHC 확충도시기안 관리, 협회회 총재이기 유지 및 자료 관리, 운영하는 총괄 발굴기 추진, 운영 지원 건강동아리 활성화, 건강도시 대회와 홍보, 홍보구 건강도시 신규사업 발굴 운영	02-2148-3047	 <p>보건소장</p> <p>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강도시계</th> <th>치매관리계</th> <th>중신건강계</th> <th>의약관리계</th> <th>건강생활계</th> <th>병문보안계</th> <th>검역병관리계</th> <th>감염병대응계</th> <th>공중위생계</th> <th>식품위생계</th> <th>위생지도계</th> </tr> </thead> <tbody> <tr> <td>전담실</td> <td>치매관리팀</td> <td>공중위생팀</td> <td>병사보안실</td> <td>구장보건센터</td> <td>병문보안팀</td> <td>예방접종실</td> <td>코로나19 운영실</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담실</td> <td></td> <td></td> <td></td> <td>지원건강생활 지원센터</td> <td>병문보안팀</td> <td>예방접종실</td> <td>감염관리실</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행정지원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건강도시계	치매관리계	중신건강계	의약관리계	건강생활계	병문보안계	검역병관리계	감염병대응계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전담실	치매관리팀	공중위생팀	병사보안실	구장보건센터	병문보안팀	예방접종실	코로나19 운영실				전담실				지원건강생활 지원센터	병문보안팀	예방접종실	감염관리실								행정지원실						
이름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김은영	팀장	건강도시팀 및 건강도시 T/E팀 운영, 분야별 업무협의, 국제 네트워크(WHO, WFPD, AFHC) 교류 및 활동 지원, 서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총괄	02-2148-3041																																																																						
이지애	주무관	건강도시 연도별 계획 수립, 시행, 건강도시 홍보사업 발굴 추진 (신발 관리 평가 보고회), 문화건강포럼 운영 및 후원 관리, 건강도시 주민교육, 건강도시 직원 교육, 홍보구 건강도시 신규사업 발굴 운영	02-2148-3042																																																																						
김보현	주무관	서유주입(예산 결산 감사) 활동 부서 재무 책임 관리 등	02-2148-3043																																																																						
서현필	주무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총괄, 협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건강도시 정책 추진(공통)기밀 회의 등, 협회로 운영위원회 운영, 실무회의의 인사총회 개최, 협회회 정기총회 개최 지원	02-2148-3045																																																																						
강신영	주무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운영(공모 및 심사 심사, 확충위원회 운영(확충 회의개최 연구 지원 등), AFHC 국제포럼 개최 및 지원, WHO 협력 개발도상국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WHO, WFPD, AFHC) 국제, 지역(연속 운영)연차 등), 화성도시 단계별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협회회 소식지 제작 및 발간	02-2148-3046																																																																						
김보연	주무관	HHC 확충도시기안 관리, 협회회 총재이기 유지 및 자료 관리, 운영하는 총괄 발굴기 추진, 운영 지원 건강동아리 활성화, 건강도시 대회와 홍보, 홍보구 건강도시 신규사업 발굴 운영	02-2148-3047																																																																						
건강도시계	치매관리계	중신건강계	의약관리계	건강생활계	병문보안계	검역병관리계	감염병대응계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전담실	치매관리팀	공중위생팀	병사보안실	구장보건센터	병문보안팀	예방접종실	코로나19 운영실																																																																		
전담실				지원건강생활 지원센터	병문보안팀	예방접종실	감염관리실																																																																		
				행정지원실																																																																					
<p>서울시 종로구청>건강도시과>건강도시팀 (팀장1, 주무관5)</p>	<p>광주광역시 동구>건강정책과>건강도시계 (팀장1, 주무관2)</p>																																																																								

□ 사업목적

-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WHO,2004)를 만들기 위함
- 건강도시 조례 개정을 통해 방향과 역할을 명확히하여 건강도시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민
- 방 법 : 조례개정, 조직개편 등
- 세부내용
 - 1) 수원시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건강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 2) 건강도시 실행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활성화
 - 건강도시위원회 구성, 건강도시위원회 년 2회 이상 회의 개최
 - 건강도시 기본계획, 사업 발굴 및 제안 등
 - 3) 건강도시 전담부서 신설
 -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신설
 - 인력 충원
 - 4)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파일 관리
 -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
 - 건강도시 프로파일 관리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지표	조례 개정 건강도시 연구	전담부서 신설 위원회 회의개최 건강도시 연구	전담부서 운영 위원회 회의개최 건강도시 연구 건강도시 사업추진수	전담부서 운영 위원회 회의개최 건강도시 연구 건강도시 사업추진수
성과목표	개정 1건 연구 1건	전담부서 신설 1건 (팀장1명, 주무관2명) 회의 운영 2회 연구 1건	전담부서 운영 1건 회의 운영 2회 연구 1건 사업추진	전담부서 운영 1건 회의 운영 2회 연구 1건 사업추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 입안 준비 • 조례개정 및 모니터링 • 건강도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 인력 정원 확보 •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활성화 (회의 운영) • 건강도시 기본계획 심의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도시 특화사업 추진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② 사업명 : 퇴원환자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스테이홈 Stay-Home 운영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120일 이상) 입원자의 약 48%가 의료적 치료 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 및 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음.
- 2016년 급성기 치료 후 180일 이내 재입원을 전국은 39.4%, 경기도 35.9%이며, 수원시 장안구 40.2%, 권선구 30.9%, 팔달구 41.3%, 영통구 34.8%로 나타남 (2020년 경기도의료원 기초조사 연구, 건국대, 2020)
- 따라서, 재입원율을 낮추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 후 당장 갈 곳이 없거나,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 서비스가 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므로 퇴원 후 의료 및 돌봄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원특례시형 모델 개발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통합제공)을 제시하였고,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계별 선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음.
- 또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복귀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전제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연계가 대부분이라 집이 없거나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는 퇴원이 지연되고 있음.

□ 사업목적

- 수원특례시형의 모델개발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 퇴원환자가 지역사회 의료복지의 체계적인 자원연계로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한 삶의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의료기관 퇴원환자
- 방 법 : 수원시 직접운영 또는 민간위탁
- 세부내용

1) 스테이 홈 개설을 위한 준비

- 시설: LH임대주택 또는 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활용
- 인력: 의사(1차 의료기관과 협약된 겸임),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인력
- 자원: 예산 확보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2) 퇴원환자 홈스테이 운영

- ① 1단계: 대상자 발굴 및 의뢰
 - 의뢰가능 기관: 의료기관 지역 내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의 실무자,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 의뢰대상자: 퇴원 후 일시 돌봄이 필요하거나 퇴원 후 주거가 없는 자로 2주 이내 지역사회로의 복귀 서비스 개입이 가능한 회복기 환자
 - 입소기간: 2주
- ② 2단계: 의뢰 접수· 대상자 결정
 - 입소 여부 결정 및 의료적 상태 확인
 - 사회·경제적 상담 시행
- ③ 3단계: 서비스 제공
 - 의료지원: 의사 진료, 건강사정, 간호 및 투약관리,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자가관리 교육,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서비스 지원 등
 - 사회복지지원: 주거, 돌봄, 공적서비스(장기요양등급 신청, 생계비 등) 연계
 - 돌봄지원: 24시간 돌봄, 병원 외래진료 방문동행, 개인위생 도움 등
- ④ 4단계: 종결
 - 퇴소기준에 따른 종결
- ⑤ 5단계: 사례 관리
 - 일일/주간/월간

3) 인력 구성 및 역할

- ① 의사
 - 협약을 통한 겸임 의사: 입소 환자 진료 및 스테이 홈 자문
- ② 간호사
 - 스테이 홈 총괄 업무
 - 간호 및 투약관리, 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 연계 업무
- ③ 사회복지사
 - 사회·경제력 평가 및 지원
 -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자원 연계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지표	추진단 구성	인력배치	스테이 홈 개설 수	스테이 홈 개설 수
성과목표	구성 완료	인력배치 완료	10개소	20개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체계구축 • 민관협력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 • 인력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③ 사업명 : 동 건강복지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강화

○ 필요성

-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취약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돕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고 이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복지 처우개선 외에도 만성적인 건강위험요인(만성질환, 흡연, 치매, 정신질환)이 산재되어 있으나 즉각 필요 서비스로 연계는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의 잠재적 또는 고유한 문제 파악과 해결, 자원 연계의 한계와 어려움, 발생 가능성 높은 문제의 사전 예방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민관의 협력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주민 고령화 문제, 인구 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음으로 돌봄 공동체 형성과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주의 팽배와 와해된 공동체 정신으로 취약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소외되는 상황과 사건의 발생이 빈번하자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 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 대두되었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확대를 모색하며 시범사업이 시행됨.
- 이 사업은 2022년부터는 전국에 확대되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진행되며 먼저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위험요인(만성질환, 흡연, 치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필요 서비스로 연계하고 치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를 진행하여 치매 및 정신질환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2019년 수원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취약 지구 8개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파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보건소로 복귀, 감염병 관리사업에 투입되었음.
- 2022년 현재 수원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간호직 공무원이 각동(44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지원으로 보건소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중 20명의 인력이 5월 30일자 동에 복귀한 상태임. 현재 수원시에 건강복지팀을 운영하는 동은 12개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중 간호직 공무원 파견업무 현황
 - 44개 동 중 12개 동 건강복지팀 신설
: 장안구(파장동, 영화동, 조원1동), 권선구(세류2동, 평동, 서둔동), 팔달구(화서1동 우만1동, 인계1동), 영통구(매탄2동, 원천동, 광교2동)
 - 44명의 간호직 공무원 중 동 복귀 인원 20명

□ 사업목적

- 지역사회 건강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의 제고를 위해 동(洞)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잠재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건과 복지의 전달체계를 연계시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예방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급자,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대상 등
- 방 법 : 찾아가는 종합상담, 방문상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등
- 세부내용
 -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건강복지팀) 활성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수립
 - 종합상담 및 발굴체계 구성
 - 간호인력과 복지인력이 협업하여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 서비스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관계 구축
 - 종결에 대한 사후관리
 - 2) 현장 자문단 운영
 -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지원
 - 민·관 협력방안 모색
 - 주민주도의 동 단위 마을 복지계획 수립·실행 자문 진행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 해당동의 장·단점, 개선방안 도출
 -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동의 문제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의제 선정 자문
 - 자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담당제’ 운영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 지표	동별 제공서비스 실적	• 동별 제공서비스 실적과 네트워크 현황 • 동별맞춤 서비스개발 여부	• 동별 제공서비스 실적 • 주민자체 프로그램 개발 여부	• 동별 제공서비스 실적 • 전담팀 운영 여부 • 연구 시행 여부
성과 목표	동별 제공 서비스 실적 100건을 도모.	동별 제공 서비스 실적 전년 대비 10% 향상	동별 제공 서비스 실적 전년 대비 10% 향상	동별 제공 서비스 실적 전년 대비 5% 향상
사업 내용	• 동별 제공서비스 유형파악 및 데이터화 • 서비스의 한계 및 문제점 파악 • 민관협력 간담회 실시	• 동별 맞춤 서비스 개발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적용 • 민관협력 내실화	• 동별 우수사례 발굴 • 주민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 • 민관협력 내실화	•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 • 사업 효과성 연구

④ 사업명 :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스톱 서비스 추진 (수원시민마음건강센터 건립 및 운영)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어느 누구도 정신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2016년 대한민국 정신건강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중 1명 발생) 지역사회내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정신건강종합 대책이 2016년 수립됨.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효과적 치료는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족 특성상 구성원 중 한명이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시 다른 구성원들도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한 건물에 한번 방문으로 각 생애주기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지역사회보장정책은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대상자 뿐 아니라 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보편적 서비스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원칙이 있으며 이를 통합정신건강센터 건립을 통해 정신건강공동체 구현이 가능함

○ 현황 및 문제점

- 1996년 경기도 최초 정신보건센터로 개소한 이래 정신보건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전국 최초 전문적·생애주기별 센터로 확장하여 6개의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여 독창적 정신건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6년 대한민국 정신건강 수도 <수원>을 선포하였음.
- 수원 관내 전문적·생애주기별 6개의 정신건강센터가 각기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에서 따로 서비스를 연인원 10만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보건 위탁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시설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 평균 70점대를 형성하며 이용자들의 시설개선 욕구를 나타내고 있음.
- 2016년부터 수원시와 통합정신건강센터(가칭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수원시 및 보건복지부의 건립 승인과 예산 확보 및 부지 선정, 건립 필요절차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 센터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건립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견다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진행이 중단됨.

□ 사업목적

○ 시민의 사회심리적 접근성 용이 도모

-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정신건강 영역을 확대 강화하여 지역적 접근성 및 사회 심리적 접근성 용이를 도모하고, 사회적 편견 없이 수원시민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정신건강 ONE-STOP 토탈 서비스 제공

-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개인과 그 가족의 구성원들 정신건강 어려움을 한 건물에서 각 생애주기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정신건강 응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협력, 연계 가능한 출동 시스템 구축 필요.

○ **정신장애인의 복지 및 문화공간 확보**

-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쾌적한 공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증진과 시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및 운동 공간 확보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하고자 함.

○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조직 재구성 및 노후 건물로 인한 운영비 지출 절감을 위함**

○ **정신건강 수도로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운영효율성 증가**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민

○ 방 법 : 수원마음건강센터(가칭) 건립

○ 세부내용

1) **센터 건립 사전 준비**

- 건립에 대한 필요한 절차 및 계획 재수립
-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 지역연대를 통한 지지 기반 확보 및 갈등 조정

2) **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 생애주기별 및 특수유형별 정신건강 사업 제공
- 정신건강 ONE-STOP 토털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육 및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정신건강공동체 도모 사업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지표	건립 계획 수립 여부	부지 선정 여부	센터건립 시작 여부	• 센터건립과 운영 여부 • 이용자 현황과 만족도 조사
성과목표	연내 센터건립 계획 수립	연내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센터건립 착공과 시행으로 2년이내 건립	정신건강 원스톱 서비스 60건 발굴
사업내용	• 건립에 대한 필요한 절차 확인 • 건립 계획 재수립 • 필요절차 수행	• 지역내 갈등 확인과 조정 • 지역 연대를 통한 지지 기반 확보 • 예산 확보 및 부지 선정	• 센터 건립 착공 • 건립 건축 시공	• 센터 건립 준공 •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5] 사업명 :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지원 및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먹거리보장 정책을 먹거리 결핍의 해소를 중심으로 구성. 그럼에도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의 1인 가구 등 먹거리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수원시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 가운데 먹거리보장의 혜택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는 30%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음(먹거리 취약계층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고령화와 도심 공동화, 1인 가구의 확대, 이주 노동자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 있음)
- 집행 기준과 표준 모델에 근거하여 먹거리 보장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한계와 함께 대상이 '특정'되어야만 하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다
- 인구 구조의 변화, 주거 형태의 변화, 배달식품의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커뮤니티 기반 먹거리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함
-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과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먹거리 보장과 관련한 행정의 역할 외에도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역할 또한 강조되어야 함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 정책으로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내 먹거리 관련 커뮤니티 형성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민

- 방 법 :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여 먹거리보장체계 운영
동마다 1개소 이상 공유부엌 설치 운영
공유냉장고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
단체 급식소의 잉여 생산물 나눔 체계마련

○ 세부내용

1)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마련

-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보장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 실현

2) 먹거리 보장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지원하는 기구 설치

-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 교육 먹거리 보장등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필요

3) 공유부역 등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통한 먹거리공동체 형성

-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여 주민 주도형 먹거리공동체 형성, 어린이식당 등 먹거리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커뮤니티 촉진 등 다양한 유형의 공유부역 운영과 지원

4) 공유냉장고와 연계한 먹거리보장 프로그램 지원

- 수원시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39기 이상 운영되고 있는 공유냉장고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공유냉장고와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보장 프로그램 지원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지표	취약계층 먹거리추진 체계 연계 실적	취약계층 먹거리추진 체계 연계 실적	취약계층 먹거리추진 체계 연계 실적	취약계층 먹거리추진 체계 연계 실적 및 실태조사
성과목표	먹거리 커뮤니티 공간 및 참여자 수	먹거리 커뮤니티 공간 및 참여자 수	먹거리 커뮤니티 공간 및 참여자 수	먹거리 커뮤니티 공간 및 참여자 수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케어 • 공유부역운영 • 공유냉장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케어 • 공유부역운영 • 공유냉장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반 모니터링

⑥ 사업명 :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수원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
- 먹거리 정책 담당 전담 부서 확대로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도시형으로 먹거리 관련 지역 현안을 먹거리 복지, 안정 및 건강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농업 확대 및 지속적인 먹거리 시민교육 필요

□ 사업목적

- 먹거리 정책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참여 확대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민

○ 방 법 : 수원시먹거리위원회 및 거버넌스운영

○ 세부내용

1) 민관협력 먹거리보장체계 마련

- 먹거리정책 전담부서 확대 : 먹거리 관련 행정부서 간 연계 강화
- 먹거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체계 활성화) : 먹거리 관련 단체 및 민관 기관 연계 강화
- 먹거리 실태 조사 및 먹거리 통계 관리

2)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교육 확대

- 수원시민 식생활교육, 인식 교육
- 지속적인 생애주기별 식생활 먹거리 교육 및 실천 운동
- 먹거리 나눔, 먹거리 공유 교육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지표	추진체계 확립	전담부서 신설	전담부서 활성화	추진체계 모니터링
성과목표	전담부서 신설 여부 거버넌스 운영횟수	전담부서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횟수	전담부서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횟수	전담부서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횟수 먹거리 전반 실태조사 및 시민인식조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정책에 대한 검토 • 거버넌스 운영 • 지원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예산 모니터링 •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예산 모니터링 • 먹거리 실태조사 및 시민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예산 모니터링 • 먹거리 실태조사 및 시민인식조사

7 사업명 : 폐의약품 배출체계 구축 및 배출현황 모니터링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선정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 현재 수원시는 48개소(주민센터 44곳, 보건소 4곳)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으나 경기도민 40%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모른다고 답변하여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상태로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함.(2021년 경기도 설문조사 참고)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55%가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하수구·변기통에 버림.
- 약국·의사·보건소로 배출하는 경우는 8%에 불과.
- 의약품은 특성상 다른 물질과 섞이면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음.
- 인도에서 디클로페낙(소염제)을 먹은 독수리 개체수가 99%감소하는 사례가 있었음.
- 우울증약이 환경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물종들의 생식기능이 약해짐.
- 현재 수원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음
- 현재 48개소(주민센터 44곳, 보건소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일원화된 폐기물 배출 및 처리가 필요하나 지자체별로 달라 주민들의 처리 방법이 혼선이 있음.

□ 사업목적

-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줄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폐의약품 방류를 멈추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수원시민, 의약품 관리 기관
- 대 상 : 수원시, 의회,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 방 법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기획단 구성
기획단은 환경정책과장, 수원시의원, 거버넌스조직,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조례를 준비해 시의회에서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기획단이 세미나, 토론 등을 통해 수원시 조례 제정

○ 세부내용

1) 폐의약품(불용의약품) 처리 조례 제정

- 기획단 구성
 - 시의회, 환경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
- 실태조사 및 타지역 사례 학습 등
 - 수원시 불용의약품 수거 및 관리 실태조사
 - 불용의약품 무단폐기 시 발생하는 리스크 학습
 - 타지역 우수사례 인터뷰 및 학습
-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 조례 문항과 예산 조율

2) 일원화된 관리 체계 수립 및 모니터링 진행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등 폐의약품에 관한 처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체계 수립
- 폐의약품 배출 및 관리 방안 대시민 홍보
- 수원시 불용의약품 수거 및 관리체계 모니터링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 2022년 : 폐의약품 처리 실태 설문조사(시민대상)
- 2023년 :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2024년 :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조례 제정
- 2025년 :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26년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실행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지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기획단 구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여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한 행정조직 규모	불용의약품 수거 시스템 점검 및 평가
성과목표	기획단 운영	예산과 조직을 담보하는 조례 제정	실제 가용한 인력과 예산 안정화	시행중인 조례의 이점과 과제 도출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및 실태조사 • 우수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업무를 소관하는 부서 업무배치 •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인원과 자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약국 등 협조를 요청해 불용의약품 수거여부 확인 • 불용의약품 관리시스템 점검 및 평가

※ [참고 :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염을 방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사업명 : 우리 동네 라돈 지도 그리기

□ 필요성 및 배경

○ 필요성

- 라돈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이며 방사성물질.
- 2018년 대진침대 사태 때 라돈노출 추정인구 10만 명.
- 이후 생리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JTBC 보도.
- 라돈침대 라돈 노출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의 폐암 발병률이 2-3배가량 높아짐.
-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남성 노출자보다 5배가량 높았음.
- 지금도 소아암, 유산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와 수원시 모두 라돈측정기 대여, 라돈 농도분석 등 행정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 행정의 관심과 의지가 명확한 성과로 드러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
-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진행 중인 열지도 그리기를 참고해 시민참여형 라돈측정 사업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시민들과 함께 라돈을 측정해 라돈의 위험성과 대안생활문화 공유
- 측정한 라돈농도를 시각화해 라돈에 대한 경각심 제고
- 해마다 동일한 시기에 진행해 자료를 축적해 시민과학 데이터로 활용

□ 사업내용 (제안내용)

- 대 상 : 라돈에 관심 있는 시민
- 방 법 : 신청자들에게 라돈측정기를 지급해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지도에 기재
- 세부내용
 - 1) 측정지점 선정
 - 주택가, 학교 등 석고보드를 사용한 건물 타겟팅해 선정
 - 2) 라돈 측정기 대수에 맞춰 대상자 모집
 - 3)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 학습 자료를 통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 공유
 - 측정방법 교육
 - 4) 측정 및 모니터링
 - 한 달간 주 1회 한 명이 4-5지점 측정
 - 어플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측정된 수치 온라인에 기입
 - 매 년 신규건축물과 기존 측정하던 건축물을 비교분석

○ 연도별 추진내용(연도별 사업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성과지표	참가자 수 참가지점 수 농도 및 분포	참가자 수 참가지점 수 농도 및 분포	참가자 수 참가지점 수 농도 및 분포	참가자 수 참가지점 수 농도 및 분포 라돈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증액여부
성과목표	-사업 당위성 시민들과 공유	-전년대비 농도변화 확인 -신규 건축물과 구 건축물 비교	-행정차원의 라돈제품 교체 근거 마련	-방사성 물질에 대한 행정과 의회의 대응 근거 마련
사업내용	• 라돈농도 측정 • 온라인 데이터 구축	• 라돈농도 측정 • 온라인 데이터 구축	• 라돈농도 측정 • 온라인 데이터 구축	• 라돈농도 측정 • 온라인 데이터 구축

[지정토론]

환경보건정책 토론
건강도시정책 토론
정신건강정책 토론
먹거리보장정책 토론



[환경보건영역]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시민건강 정책 토론회

이기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장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보건 분야 최상위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2021~2030)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는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화학사고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수원시 환경보건계획’은 이미 계획이 수립된 서울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 등 타 광역단체 계획을 참조하되, 수원시 여건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에서도 여러 자문위원들께서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주문하셨는데,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자료를 보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정책을 수원시에서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수원시의 환경 위해 및 보건 현황을 고려하여 보다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위해 및 보건 현황 조사 결과 무엇이 문제여서 성과지표 설정 및 세부 추진사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잘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라돈 농도는 113.4 Bq/m^3 으로 경기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특히 단독주택은 135.9 Bq/m^3 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수원시 실태를 감안하여 라돈 실태조사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단독주택 위주로 강화하여 추진하겠다고 제시하면 성과목표나 세부 추진사업 설정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돈이 법적 기준치 이내여서 성과지표를 실태조사 실시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길 기대합니다.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 용역에서 수원시 관계 실과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세부사업을 보완하는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점사업 및 세부 추진사업 설정 등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더욱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 및 세부 추진사업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부 지표

는 그 중요성 및 현안 해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음은 'IoT 기반 소음측정망 구축'만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한다면 방음시설 설치 확대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빛공해 저감 컨설팅 사업'은 2025년 50건에서 2030년 20건으로 감소되는데, 2030년에는 빛공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는 추측하에 지표를 설정한 것인지 지표 설정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국한하지 말고, 녹지나 친수공간 확대 등 그린인프라를 확대하여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별 세부 추진사업 일부는 관련 업무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 추진 출생코호트 사업이 아니라면 환경부 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은 「환경보건법」제15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추적(2015~2036년)하여 환경성질환의 선제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세코호트 참여자 5천명, 대규모코호트 참여자 6만 5천명 등 총 7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환경성질환을 중심으로 38개 중점시설을 입증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 예방체계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상호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점검 등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호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설치 추진은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권역형 센터는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특례시를 대상으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제시된 자문의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용역 결과물이 산출되길 기대합니다.

제5기 시민건강 정책 제안 내용은 건강도시 수원시 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건강분과에서 시민의 건강에 밀접한 건강도시/환경보건/먹거리 보장/신체·정신적 건강 등 4개 영역을 학습하고 고민한 결과를 존중하지만, 환경보건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관련된 분야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추진과제와 연관된 과제가 많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영역] 환경성질환과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역할

박혜원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부센터장

1. 개요

□ 건립배경

서구화된 생활 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지구온난화, 산업화에 의한 환경자극 물질 혹은 유해물질에의 노출 증가, 실내 및 실외 알레르겐 감작의 증가, 피부감염,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환경부, 경기도, 아토피제로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함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대표적인 컨소시엄 사업으로 2014년 건립되었다. 센터의 전문성을 위해 **아주대학교의료원**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으며, 전국 8개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중 유일한 수도권, **도심형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운영목표

환경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위험요인 분석 등 전문의료기술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질환의 유병률 및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재발과 만성화를 예방함으로써 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환경성질환과 아토피질환 1)

환경성질환이란 일반적으로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 축적되면서 건강상태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질병을 통칭한다. 환경보건법상으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이다. 대표적 환경성 질환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이들 3대 질환은 아토피질환이라 하며,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심각히 훼손한다. 아토피란 외부환경물질에 과민반응을 보여 알레르기질환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인 성향이다, 즉 알레르기체질을 말한다.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알레르기질환이 발병한다. 최근 알레르기질환의 급증은 유전보다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실내 환경(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과 실외환경(대기오염, 미세먼지, 꽃가루 등)에 노출될 때 증상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므로 환경관리 및 악화인자 회피교육이 질환 관리에 필수적이다.

1) 수원시아토피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전문교육, 2014

□ 환경성질환의 현황 2)

(경기도) 환경성 질환자수는 인구대비 수원시가 가장 많으며, 가평군, 양평군등 교외지역에 비해 도심지역에 질환자가 집중되어 있음.

(수원시) 환경성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약 20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9세 이하에 집중되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약 85,400원임.

2. 센터의 역할 및 사업 내용

-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및 교육에 중점
- 질환자의 삶의 질 증진, 예비질환자의 질환 예방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 고려
- 개인, 가족, 사회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강좌, 체험키트 활용) 융합 운영

질환관리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 상담 맞춤 교육, 아토피특성화학교 방문 선별검진, 교육 및 사후관리 (의료진 중심)
질환가족지원	숙박형/당일형 캠프, 부모교실/어머니학교, 강의/체험놀이 학습
정보제공	무료 시민 공개강좌, 전문가 소그룹 특강 등
단체예방교육	영·유아, 청소년, 가족 등 대상별 눈높이 예방교육과 인형극 공연, 책놀이, 텃밭 체험, 숲 활동을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
전문인력양성	환경성질환 및 환경관리 종사자교육(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교육- 환경교사, 보육교사 중심), 인형극단/책놀이활동 전문가 양성교육 및 수료증 수여
연구개발	영유아 눈높이에 맞춘 질환예방 및 환경관리 교육 콘텐츠 자체개발
지역사회연계	친환경먹거리체험(영양사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저소득, 다문화,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노인기관 등 연계 교육상담 제공-사회복지사중심), 청소년자원봉사

3. 센터의 이용방법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233번길 144

홈페이지: www.atopyzerosuwon.or.kr

소셜미디어:    @atopyzerosuwon

2) 환경성질환자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자료(2019. 12. 31.기준)
인구통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19.12.31.기준)

[건강도시영역] 토론문

김혜경 / (전)장안구보건소 소장

건강도시의 등장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비증가와 건강불평등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의료적 접근과 개인 수준의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과거의 공중보건으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 1974년의 Lalonde 보고서와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고 결국 1980년대 이후 신공중보건(New Public Health)이 태동되었다. 신공중보건은 개인,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의 조직적 노력을 통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학이자 기예를 말한다. 건강도시는 이러한 신공중보건의 주요한 실천 전략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유럽사무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건강도시의 정의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를 “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는 특징적인 네 가지 핵심어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건강개념을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광의적 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시민참여와 임파워먼트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을 강조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을 말하고 있다. 넷째는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로 정의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건강도시 현황

건강도시는 1986년 세계보건기구 유럽 및 북미지역사무국에서 16개국 30개 도시에서 출발하였고 서태평양지역은 1980년대 말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였다. 현재는 1,000여 도시나 마을이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강도시는 1986년에 국내 학회에 처음 소개되었고 1996년에 과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에 4개 도시가 AFHC(Alliance for Healthu Cities)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발족되었으며 2022년 7월 현재 총 101개 도시가 이 협의체 회원이다.

주요 건강도시 사업

건강도시의 6가지 사업 영역과 각 영역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의식(health awareness)의 강화**, 이를 위한 활동은 건강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건강 관련 자료 개발과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 홍보 캠페인, 도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건강 기여 평가(health audit) 등이 있다.

2) **전략적 기획(장기적인 전략)**, 예를 들면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와 도시건강개발계획(city health development planning)이 있다.

3) **부문 간 협력 활동**, 이를 위한 조직구조와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여러 부문을 참여시키는 것, 건강영향평가와 전략적 계획 수립 및 주민 욕구 조사 혹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시 주민 참여 및 부문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4)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임파워먼트는 지역사회 참여의 핵심요소이다.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도시 사무소에 시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키고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는다. 그 외 지역사회 주민조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취약한 지역 대상의 지역사회 개발 추진 시 건강도시 사업이 그 일부로 참여할 수 있다.

5) **혁신 진작**,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창의성과 유연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혁신이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6) **건강한 공공정책 강화**, 가정, 학교, 직장, 보건의료기관 등 시민의 일상 생활터를 관할하는 도시 정부의 각 부서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터를 만드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

우리나라 및 수원시 건강도시 사업의 문제점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등 구조가 취약하며,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사업에 대한 질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2011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후 전담직원을 두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과 시민의 관심이 부족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으며, 부문 간 협력전략과 주민참여 기전이 부족하다.

향후 발전 방향

1) 담당 인력 역량 강화

- 건강도시의 필요성, 개념, 목적, 접근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2) 부문 간 협력 전략 수립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 시의 관련 부서 간 협력 방법의 모색

3) 도시재생 사업과 건강도시 사업의 연계

- 200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주민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해짐

-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 밀도, 토지이용 혼합, 시설접근성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요인과 개인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보건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4) 건강영향평가 실시

- 건강영향평가는 도시의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그 분포를 예측함으로써 부정적 건강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건강영향은 최대화 할 것을 목적으로 함

5) 도시건강개발계획 수립

-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차이점은 보건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부문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임

- 도시건강프로파일 등의 근거를 통해 부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

6) 전담부서 신설

[정신건강영역]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평생정신건강통합서비스를 받아야합니다.

박미애 /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다시 말하는 정신건강의 중요성

- WHO 정신건강분야 전체 보건예산대비 5% 권고
 - 선진국 5%, 대한민국 1.5%
 -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분야 예산 1.5%
- 2021년 신설 초기.응급대응 실인원 1,504명
 - 중증 정신건강문제 새로운 대상자 개입(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 2021년 일반상담 14,815명 /365일 =40.5명(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정신건강문제 예측 가능
 - 수원시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자살시도자 비율 증가 (0.4%→0.6%)
 - 본센터 일반상담 문제종류 우울과 불안 급증 (80% 이상)
- 보건과 복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2016년)
- 온국민 마음건강종합대책 발표(보건복지부 2021.1.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정책여건
 - 위드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증가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위해요인도 지속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요구도 증가
 - 정신건강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 증가
 - 기본계획
 - 코로나 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 전 국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 정신질환자가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
 - 약물 중독 , 이용 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자살 충동 , 자살 수단 ,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하드웨어의 중요성
 -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330㎡ 이상의 공간확보를 권고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 , 경기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면적 350.6㎡ 확보
 - 경기도내 군포시, 안성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등 최근 건물신축 또는 예정

□ 수원시마음건강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

- 2016년 수원시정신건강수도 선포
 - 수원시를 정신건강도시로 만들고자 정신건강수도 선포 및 시민의 정신건강권리 선언
 - 아래와 같은 정신건강도시의 지표 설정 필요
 - 정신건강정책 ·시설 ·환경 , 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개인활동, ict 기반의 서비스구축
- 2016년 마음건강치유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노력
 - 국도비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도시시범사업안 추진 제안
 - M테마파크 조성을위한 건립계획안 제출
 -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민간)
 -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수원시민 서명운동
 - 100인의 시민토론회 개최-센터건립 욕구확인
- 2016년 방침 결재 이후 진행사항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12월 기본계획 변경으로 당초 국도비 지원에서 시비 100%
 - 중기지방재정계획 완료
 - 2017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 2018년 주변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역주민 건립 민원발생
 - 수차례 건물성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등 설명모임
 - 코로나19 상황이후 현재 건립 표류

□ 통합된 정신건강 서비스 미룰 수 없는 이유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대두
 - 2018년 영국 외로움부장관 임명/ 2021년 일본 외로움부장관 임명이 시사하는점
- 현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전문가의 적극적 통합적 개입
 -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동대응,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노력
 - 건립센터 당초계획(지하3층 지상8층)
 - 1~3층 공동시설 매점 갤러리 공방 북카페 정신건강체험관 자료실
 - 7~8층 문화공간 공연장 연습실 강당 , 체육관 식당
-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 흩어진 6개 정신건강관련기관의 공간 통합, 확실하고 신속한 서비스제공
 - 태어나면서 사망시까지, 정상군에서 만성질환군까지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제공

“정신건강! 특별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M(Mental Health)테마파크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혁신'

증진	예방	회복
행복라이프스타일 Zone 국민정신건강안전체험관 • <u>라이드영상관</u> • 마음건강도서관 • 마음건강 체험형 박물관 • <u>마음건강로드맵 체험장</u> 마음치유 숲 • 마음건강놀이터 • 마음건강캠핑장 • 24인의 정신건강위인 동상	마음치유 Zone 마음치유센터 • 정신건강가족협회 • 행복정신건강센터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 성인정신건강센터 • 노인정신건강센터/치매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복정신건강연구소 • <u>마음키즈카페(정신장애인직업재활)</u> • <u>마음치유식당(정신장애인직업재활)</u>	정신건강복합주거단지 Zone 재활회복공간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노인주간보호센터 • <u>시민개방마음돌봄농장</u> 생활회복공간 • 생활시설 • 노인정신건강복합주거단지 • 단기보호시설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절감 및 도시경쟁력 최대화



[먹거리보장 및 먹거리 정책추진체계 확립] 토론문

박종아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 먹거리보장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는 예산, 인력이라는 제약조건과 함께 이를 위한 국내적 완전체 사례를 찾아 볼수 없는 거시적 아젠더이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한계내에서 먹거리보장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가 시도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례 또한 많이 찾아 볼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저생활보장과 관련된 복지제도, 학교무상급식, 푸드뱅크 등이 그것이다.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복지제도상의 먹거리전달체계, 통합먹거리지원센터 등이 그것이다.
2. 현재 우리사회가 먹거리에 접근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가격체계에 근거해 지불 가능한 시장거래방식에 의존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가격지불능력이 없는 시민들은 국가복지제도를 통합 접근방법이다. 한편 우리가 시장이나 국가라는 이분법에서 놓치고 있는 제 3섹터형의 먹거리접근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형 먹거리공동체가 그것이다. 지역자원봉사 조직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먹거리나눔식당, 공유냉장고, 공유부엌 등이 있다. 이렇게 시장, 국가, 공동체라는 사회적 기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계 맺고 밸런스를 유지할 때 먹거리 접근성은 매우 높아질수 있다.
3. 사업명 먹거리보장 관련하여 먹거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된 44개동에 공유부엌 설치운영은 공유부엌의 공간과 설비, 그리고 인력배치, 식재료공급,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예산 및 인력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공유부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무엇으로 할것인지, 만약에 사각지대 해소용이라면 기존의 복지관의 식당을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해결할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고, 수급자 기준 완화를 통한 먹거리 쿠폰이나 도시락배달을 통한 접근법, 기존 식당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부엌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무엇으로 할지 합의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4. 따라서 먹거리보장과 관련해서 시장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공유냉장고는 제 3섹터형 민간단위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유부엌은 예산과 인력의 규모상 행정지원으로 설정하된 민간과 행정의 역할을 나누거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존 복지관을 활용하거나 먹거리 전달체계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고 이후 생명산업과 또는 통합먹거리지

원센터라는 전달체계상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면 역할이나 기능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고민이 된다. 지금으로서는 사회복지부서와 생명산업과가 통합적으로 먹거리보장정책을 펼치나갈 가능성은 없다.

5. 학교단체급식의 잉여식재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현재 법규와 책임소재 문제와 관련하여 불가능하다. 프랑스처럼 잉여식재료를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으로 기부할수 있게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6. 공유냉장고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갖게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행정에서는 수원시 먹거리공유어플 즉 공공어플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7.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수원시 통합시민먹거리지원센터'를 시 재단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적인 먹거리지원 전달체계로 작동할지 여부는 검증된 바 없으며 현재 화성시, 전주시, 완주군 등에서 운영하는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시 산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먹거리보장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화성, 전주, 완주의 먹거리지원센터는 로컬푸드 판매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로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공급유통체계의 일부로서만 작동되고 있다.
8. 현재로서 점진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며 푸드플랜 '먹거리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급식, 농업생산, 먹거리보장,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교육청소년학과, 생명산업과, 사회복지관련 부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식당위생 관련부서 또한 통합적인 푸드플랜안으로 체계화하여 정책운명을 조율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먹거리위원회 역시 일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모여 이러한 통합 운영 마스터플랜을 마련할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행정안에서 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법적 책임과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9. 모든 제도와 행동에는 장단점과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하고 실험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경험만큼 훌륭한 검증은 없다. 우리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실험하고 행동한다면 시행착오를 더 줄이고 효과적인 해답들을 현장에서 찾아 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행동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